



『심층 이슈』

영국 3대 상업지상파 방송사들의 문제들

출처 : C21Media (2010/9/8)

주요내용

- ITV, Channel 4 그리고 Channel 5에 새로운 사장들이 영입되면서 영국의 상업 지상파 방송사들은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이제는 두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됨. Adam Benzine은 이 방송 삼사가 처한 다른 도전들이 무엇인지 검토함.
- 2009년은 영국 상업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혼란스러운 한해였지만 2010년은 이들 3사에게는 안정된 모습을 갖추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임. 새로운 사장단들과 의장을 가지게 된 ITV와 Channel 4 그리고 아예 주인이 바뀐 Channel 5 세 방송사는 영국에서 매일 평균 30%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지난 18개월간 영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방송광고 시장에 거의 죽음에 이른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그 보다 또 다른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시청자 확보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만회 할 때가 옴.
- 그러나 자금부족, 최근 지상파 방송의 일인자 자리를 확실히 굳히고 있는 BBC의 존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 BSkyB의 도전 등으로 이러한 회복에 대한 도전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유료 TV 채널인 BSkyB는 현재 영국 내 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매료 시키고 있음. 한편 BSkyB는 현재 드라마를 비롯한 사실 극 그리고 코미디 등을 안방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BSkyB는 당사 사실 극 브랜드를 배우 겸 프리젠티어인 Ross Kemp가 진행하고 있음.

- 새로운 보스들이 지휘를 맡은 3개 상업방송사들을 더욱 염려시키는 것은 유료 TV 네트워크상에서의 상대적 창조성 작업의 용이성으로 Sky 1의 드라마 Mag Dog이 ITV와 BBC의 드라마를 앞지르게 되었다고 Mad Dog의 제작자가 밝힌 바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3개 상업방송사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장벽이 또 하나 생기는 것임.
- 궁극적으로 이들 3개 방송사들이 처한 문제점들은 각기 다름. C21은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어 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듣기 위해 분석가들과 이 분야 산업전문과들과 토론을 함.

[Channel 5의 대량해고]

- 지난 7월 Channel 5를 인수하면서 미디어계의 남작으로 알려진 Richard Desmond씨는 TV 인터뷰를 통해 Channel 5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크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일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없어지게 됨. 그것은 영국 일간지 지면을 장식한 Desmond씨의 대량해고 사태였는데 총 9명의 디렉트들 중 7명이 사표를 제출해야 했으며 300명의 직원 중 4분의 1이 해고정리 될 것이라는 깜짝 놀랄 기사가 나오게 됨. 이것은 지난 해 이미 350명 직원 중 50명 삭감 조치가 있는 후라 더욱 놀랄만한 조치였음.
- 그러나 이러한 Desmond의 극단적 방법은 이 분야 분석가들에 의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음. Ingenious Corporate Finance의 디렉트 Tom Manwaring씨는 Channel 5는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이익 창출을 내었을 뿐이며 2008/2009년 수익은 30% 하락하였다고 언급함. 그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익을 만들 수 방법은 운영비의 과감한 삭감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채널 5는 앞으로 다른 회사들의 눈치와 원조를 받아가며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채널 5의 가장 큰 문제점은 ITV 처럼 두꺼운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는

프라임 타임에 광고를 낼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UKTV 같은 케이블 네트워크들이 하고 있는 틈새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저렴한 광고 슬롯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것임.

- 이것들과 복합되어 채널 5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CSI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또한 걸출한 원작 프로그램의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CSI에 채널 5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Pioneer Productions MD인 Stuart Carter씨는 밝히면서 이것이 채널 5만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덧붙임.
- 채널 5를 떠나게 되는 인사들은 사장 Dawn Airey, MD Mark White와 콘트롤러 Richard Woolfe이며 구매담당 Jeff Ford씨가 승진하면서 Woolfe씨의 자리를 이려 받게 됨. 어제는 시니어 프로그램 조정 Chris Shaw, 아동 프로그램 담당 Nick Wilson씨와 스포츠 담당 Robert Charles등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고 발표함.
- Jeff Ford의 승진은 Desmond사 미국 드라마 투자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편 Desmond는 프리미엄 광고를 구축하기 위해 걸출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인 The X Factor나 Big Brother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 그러나 Manwaring 씨는 이미 구식화 되고 죽어버린 남의 포맷을 가져온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언급하면서 꼭 The X Factor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약간 더 실험적인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포맷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 덧붙임.
- Desmond씨는 채널 5에 향후 5년간 £1.5bn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쓰여 질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 질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미국 프로그램 구입, 인기 드라마 혹은 엔터테인먼트 포맷에 투입 할 것인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음.

[Channel 4의 TV와 온라인 합병]

- 전 채널 4의 회장 Luke Johnson씨와 사장 Andy Duncan씨가 일년 전 방송사의 런던 본사 지하에서 채널 4는 자금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 리포트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들을 뒤이은 후계자인

Terry Burns씨와 David Abrahams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 현 채널 4의 회장인 Burns씨에게 공영 서비스 방송사들이 금융구제조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다면 그의 대답은 명확함, 그는 “나는 내가 그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맞추어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 라고 언급함.
- 확실히 지난 18개월간 채널 4의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음. 지난 28년 방송 역사상 영국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가장 최악의 광고 감소로 인한 영국의 주요 방송사들의 손실은 무려 622.2% 하락세를 보였음. 2009년 주요 방송사들의 손실액은 £61.6m 파운드로 전년 손실액 £9.9m와도 판이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전체 수익은 영국 경제 침체와 함께 지난 해 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러한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한 첫 시도로 신임 회장 Abrahams씨는 25%의 중견 매니저들의 역할을 없애 버리고 그 역할을 창조적 활동에 병합시켜 단일 교차 플랫폼 콘텐츠 부서에 이 작업을 일임하여 창조부서장에게 지휘를 맡긴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번 계획안의 실행으로 첫 번째로 해고 대상에 오른 이들은 미래 미디어 다이렉트 Jon Gysby, 신사업 부서장 Natalie Schwarz 그리고 교육담당 부서장 Janey Walker 등이다. 한편 Hamish Mykura와 Angela Jain은 디지털 네트워크 More4와 E4의 사령탑에서 하차하게 되었음.
- 현재 채널 4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프로그래밍 쪽인데 Abrahams씨는 이 분야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음. 미국 드라마 시리즈와의 장기 계약의 족쇄를 달고 출발한 채널 5의 Desmond씨와는 달리 Abrahams씨는 자리를 잡자마자 가장 큰 브랜드였던 Big Brother의 포맷을 잃게 됨. 이에 따라 그는 이 빈자리를 채울 콘텐츠 개발에 £50m 파운드를 쏟아 부을 예정임.
-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채널 4는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압력도 만만치 않음.

[ITV의 광고 너머에 대한 견지]

- ITV의 신입 회장 Adam Crozier씨는 지난 달 그의 첫 주요 프레스 세션에서 영국의 상업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진 문제점들은 단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여 년간의 축적된 이슈이며 해결책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함.
- 그는 그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뚜렷하였는데 ITV는 이제 까지 인터넷 광고와 유료 TV 성장으로부터 수익을 발생 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또한 자체 프로덕션 기관인 ITV Studios는 Lee Bartlett의 창조적 리더십의 부재로 운영 되었다고 말함.
- ITV는 단기성 프로그램 보다는 장기적이며 향후 재방영 가능성이 있는 시리즈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경쟁 업체 보다 뒤 떨어진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Crozier씨는 언급함. 그의 결론은 ITV는 의사결정과 그 실행단계에서 뒤떨어진 수준을 보여 왔으며 직원관리와 운영 면에서 상당한 약점을 보인다고 진단함.
- 한편 ITV는 경제침체와 함께 광고 시장 몰락으로 타격을 입음. 그러나 2010년 상반기에 상당한 반전을 일구어 내며 세금 전 수익이 2009년 £46m 파운드에서 259% 증가한 £165m 파운드를 기록함. 결산공고는 긍정적인 것이며 최상의 결론은 아니지만 ITV는 훨씬 단단해졌다고 Panmure Gordon의 분석가인 Alex DeGroot가 언급함. 또한 그는 소득은 지난 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광고 수익 회복 때문이라 덧붙임.
- 한편 ITV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rozier씨는 5년 중장기 계획 '변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오는 2015년 까지 비 광고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의 50%를 상회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유료 TV가 이 계획의 주요 주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외에도 Sky의 플랫폼을 사용해 시청자에게 나갈 고품질 ITV2,3,4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음.
- ITV는 지상파 방송인 ITV1에 £800m 이하의 예산을 2011년과 12년에 편성할 계획이며 동시에 향후 3년간 콘텐츠와 디지털 채널에 대한 온라인 투자 운영비로 £75m를 책정해 놓음. Ingenious의 Manwaring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이 임명된 MD Lygo씨가 창조적 우수성을 개발해 내는 센터로서 또한 자체 제작 포맷 쇼 공장으로서 ITV Studio를 잘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임. 그러나 그는 이것은 이상적인 목표

치 일 뿐 실제로 획득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한편 Lygo씨는 그의 전임자가 성공시킨 Britain's Got Talent나 The X Factor등에 견줄만한 후발 작을 만들어 내야하는 부담이 있음. 현재 ITV Studio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 요리 시리즈 Come Dine With Me와 라이프스타일 포맷인 Four Weddings가 지난 12달 간 해외에서 성공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